

“네가 살아 있느냐?”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94장 다함께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 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6:53~58 다함께

⁵³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
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⁵⁴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⁵⁵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⁵⁶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⁵⁷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
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
암아 살리라 ⁵⁸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
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네가 살아 있느냐?”

2025. 2. 16. 주일예배 설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의 의미”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기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먹는다’, ‘마신다’. 이것이 음식에 관한 것이면 괜찮은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시고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3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54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눅 22:19) 할 때의 “몸(soma)” 은, 여기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으라” 할 때의 “살(sarks)” 과는 다릅니다. “몸” 은 몸 전체(body)를 가리킨다면, “살” 은 원어 상 세부적인 살점(flesh)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피를 마시게 되면, 두 사람의 피는 하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내 살을 먹으라” 는 이 말씀은 내 몸에 다른 사람의 살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는 이 말씀은 ‘나 예수를 네 안에 온전히 받아 들여라’ 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 입니다.

※ 이는 ‘나를 네 안에 온전히 받아 들여라’ 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

신약성경에서 믿음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머리로 받아들이는 ‘지적 동의’. 둘째는 그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마음을 여는 ‘인격적 신뢰’. 그리고 셋째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따르기 시작하는 ‘전적인 헌신’.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와 완전히 연합하여, 내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함께 흐르게 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또한 이것이 영적 연합입니다.

※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 영적 연합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적인 생명”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bios)”, ‘육체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bios)은 지속적이지도, 또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생명인 영적인 생명, “조에(zoe)”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zoe)은 요한복음에서만 서른여섯 번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주시려 하셨던,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zoe)은 우리 생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묵은, 과거의 상처들도 서서히 해결해 줍니다. 또한 청년은 청년대로의 멋으로, 중년은 중년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노년에는 육체의 연약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조절해가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등,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 이는 두려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은총”

예수를 머리로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님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처럼, 혹시 지금 우리도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영적 생명(zoe)이 아닌, 육체의 생명(bios)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살아 있느냐?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나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라. 그 때에, 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매우 신비적인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예수를 “먹고 마시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내 안의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자기 다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분해되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려도 좋다.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결심하는 순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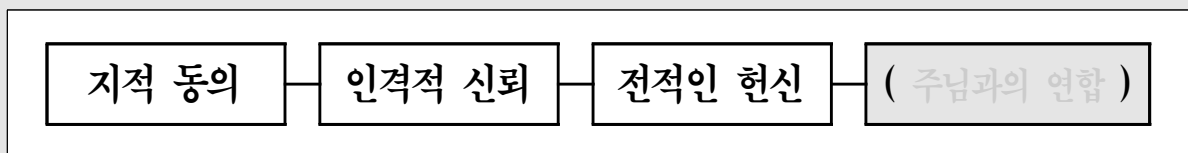
결론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인 요한이 돌이켜 볼 때, 예수님의 33년 삶 전체는 매일이 최후의 만찬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순간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셔서, 자기를 완전히 분해하여 사라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내 세포와 내 유전자에 까지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짓이겨 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 ① 신약성경은 믿음을 몇 가지 차원으로 말씀합니다. 각각의 믿음의 차원을 설명해 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은 무엇인지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주님과의 연합) (p.2)



- ② 본문(교재)은 생명을 두 가지로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p.3) 만약 지금 주님께서 “네가 살아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누어 봅시다.
- ③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는 말씀에는 주님의 ‘자기 다짐’ 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p.3)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여러 번 읊어보고,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잠시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구역원들과 나누어 봅니다. 또한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기도제목으로도 표현해 봅니다.
-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